

국토 A Country 세 개의 풍경 LEE Jong-gu Three Landscapes 이종구 20090304-0426

이종구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촌을 중심으로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그들의 외침을 담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동시대 땅을 업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순박하고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일이다. 모더니즘의 늪을 빠져나와 이시대의 사실주의 작가로, 단순한 고향사람들의 초상화에서 그 문화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기까지, 또 구조적 모순에 덮인 땅의 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국토 인식까지 꾸준하면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였다.

뿌린 만큼 거두어들이는다는 정직한 자연의 순리가 외면당하고 이제는 삶의 자리마저 내놓아야 하는 이 땅의 아픔을 노래한 그는 이 시대 농민의 향에 걸맞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종구는 '회화의 진실은 곧 대상의 진실'이라는 명제를 깊이 새기고 사는 작가로서 그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버림받은 농민과 땅에의 애증을 더욱 강한 부정의 미학과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나아가 현대의 사회구조를 비판적인 눈으로 통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재된 분노와 저항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는 그는 단순히 풍경을 극사실적 혹은 낭만적으로 재현하는 일반적인 구상작가가 아닌 진정한 리얼리즘 작가이다.



이종구의 국토, 인문지리학 서설

미미한 존재들, 아니 거대했으나 한 번도 주목받아오지 못했던 존재들. 소... 갱싸고 가벼워 서민들 삶에 필수품으로 애용되나 왕왕 그 존재감조차도 없는 용기들인 플라스틱 양동이나 슬리퍼... 밍크코트 한 벌이면 그 옷 한 트럭을 살 수 있는 갱싸고 질기고 실용적인 몸뻐나 튼튼한 작업복... 그는 이들을 바라본다. 검은 대지, 허름한 작업복으로 갈고 누웠을 그 농부의 그 땅.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가 소망의 전부인 '대추리' 노인의 키낮은 바람... 수평적 존재들이다. 이제 그 납작한 수평들 위로, 농촌마을 '오지리' 옥담 황금 들녘 위로 '델타항공' 비행기가 거대한 그림자로 들판의 색깔을 바꾸며 지나간다. 수직의 출현...

2009년 이종구의 국토지리이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있는가? 거대한 양동이나 농촌 풍경을 병치한 낯선 풍경. 고요하게 주인을 주시하는 소들의 눈망울은 등 뒤의 검음(玄)을 더 깊고 미묘하게 새겨놓는다. 국토순례의 풍경들은 경국지세 앞의 비운의 왕자가 부는 만파식적의 애잔함으로 가득하다. 이들 작품에 일관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불안이나 위기의식이라고 불러볼 수 있을까? 위기나 불안이 그의 주제가 된 것은 이번 전시에서만의 특별한 특징이라 말할 수는 없으리라.

1984년, 30대 초반의 나이에 농군 부친의 초상을 '정부양곡' 마크가 선명한 쌀부대에 그려냈던 이래로 그는 땅의 정신, 땅의 노래, 땅의 얼굴, 땅의 사람들의 허탈과 좌절, 비루함, 배반감, 깊은 소외감 등을 그려왔다. 그럼에도, 이종구 그가 '변했다'. 고향 오지리를 통하여 보편적인 우리의 농촌 현실을 직정적으로 표현했던 과거와 달리 근작들은 현장성의 직접적 대면이 아닌 그 주변의 파편이나 흔적 풍경을 통해 그 찝찝한 시간이나 정치경제학적 모순 구조를 관람자에게서 재구성되는 상상력에 위임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국토>라는 전시명 아래의 소들의 초상이나 불국정도의 풍경, 초현실적 데페이즈망(dépayement) 정물화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들 근작들의 의미를 가능해 보고자 하는 우리는 이내 보다 본질적인 상징물을 내세워 삶의 이면구조를 환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해 낼 수 있을 듯하다. 고향 오지리를 통하여 보편적인 우리의 농촌 현실을 직정적으로 표현했던 과거와 달리 근작들은 현장성의 직접적 대면이 아닌 그 주변의 파편이나 흔적 풍경을 통해 그 찝찝한 시간이나 정치경제학적 모순 구조를 관람자에게서 재구성되는 상상력에 위임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근작들을 일러 현재의 불안이나 위기를 지나쳐 초과해 버린 미래에 대한 예감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잠수함의 토끼처럼 숨막히는 시대의 징후를 미리 읽는 자의 새로운 '판'에 대한 예감이라 할까... 그것은 과도해진 사물이 없는 고독감이요 풍경이 박명(薄明)의 시간으로 제 모습을 숨기는 속울음의 시간이다. 현실을 보다 과도하게 직조하거나 풍경은 직접성 그 이상의 위치를 점유해 들어감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미래에로 시선을 던지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리는 우선 우리 삶을 직조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을 의심한다. 2009년, 우리는 미증유의 개발독재의 새 정치체계를 새로 선출했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시대는 더욱 악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할퀴고 있는 시대다. 이 악마적 삶은 (80년대적) 수직 환기의 힘 하나만으로는 왕왕 오류의 미망에 떨어지고야 말게 하는 사태인 것이다. 혹은 문화를 의심해볼까...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에 대한 거부, 모든 관계적인 것에 대한 혐오, 모든 전체인 것에 대한 발작"으로 표현되는 이 시대의 에피스테메다. 그의 보다 본질적인 상징들은 이 현혹의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자 하는 정공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라크 전장의 폐허지에서 그가 제3세계 민중들에게 연대를 보내며 했던 작업이 파편 흔적들의 수집이었던, 그것은 보다 실제적이고 하는 바람의 연장선이다. 분위기나 정조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 가르칠려는 전체의 축도(縮圖) 보다는 부분이 환기하는 힘을 더 믿는 것. 그 상징의 힘으로 그는 이 시대의 음흉한 상식과 싸우려 하는 것이다. 그의 이 싸움이 국토지리가 아닌 인문지리인 이유다. 역사성의 관점에서 우리 삶과 문명에 대해 허심탄회해보자는 제안인 것이다. 그래서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또 변했다는 것이다.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이 땅의 울분과 영광 그 바닥으로부터 한 치도 공중부양해본 적이 없는 진실한 리얼리스트라는 것이요, 그가 변했다는 건 수직에서 수평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눈인 인문적 추상의 힘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체가되 보다 치명적 실체여야 한다는 것. 허무이되 보다 통렬한 허무여야 한다는 것. 보다 냉혹해지고 보다 교활해진 삶의 모순을 뚫고나갈 방도! 생생한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꿈이라는 것! 인문적 리얼리스트의 길!

박응주(예술학, 미술비평)

국토 A Country
세 개의 풍경 Three Landscapes
LEE Jong-gu
이종구 20090304-0426



Lee, Jong-Gu is an artist who focuses and tries to put and express the people and lives of fast-changing culture of countryside. His work is based on having the views in simple-minded manner of farm villagers and putting them together as it is. Coming out from the swamps of modernism, he is a realist in this age who portrayed his home-town folks to critical view in realities of the culture. Also to look squarely and having territorial cognition, on land that veiled by structure of contradiction, being consistent and leading to result of having a great stride of development.

It's a society that neglects the idea of "the amount you cultivate is the amount you will harvest." Lee, Jong-Gu sang the pains of the land that must give up on its living existences. He has no choice but to raise his voice for farmers complains. Lee, Jong-Gu highly regards the idea "truths in painting is in other words truths in a Subject and to actualize his opinions, strongly expressing the injustice and images for the abandoned farmers and land's love and hate. Furthermore, critically insighting structure of the modern society. He expresses the inheritance of fury and resistance, and hope, not just simply being hyper-realistic or romantically reproducing, a true realist.

An introduction to Lee Jong-Gu's National and Human Geography (Park Eung-Joo(Art Critic))

It has been a trivial existence. Although it is a big creature, it has never acquired the attention of people cattle. Although they are cheap and light enough to be used as necessities in the lives of the populace, they are also barely noticed - plastic buckets or a pair of slippers. The money for a fur coat will buy tons of those cheap, durable and practical garments- cheap women's work pants or training suits. He turns his eyes upon these trifling things. There is a black land. A farmer should have wandered and worked on it for a long time with shabby garments. There is an old man living in a rural area. His only humble wish is "I want to farm my own land!" - All of them are horizontal existences. Above the horizontal line, and above the golden plain of Oji-ri, a countryside village, a "Delta Airlines" airplane passes by a vertical existence appears.

This is a national geography of Lee Jong-Gu in 2009. What does he intend to say? There is a strange combination of a magnificent bucket and the scenery of countryside. The eyes of cattle silently looking at the rancher make the blackness behind them deeper and more delicate. The pictures taken during the journey along the country are brimming with the sorrow tune of Manpasikjok, the fabulous flute in the legend, played by a misfortunate prince in front of a Helen of Troy. Is the atmosphere hanging over all his works anxiety or crisis? Crisis or anxiety cannot be a distinguishing factor of this exhibition since it already has been the subjects of his prior exhibition. In 1984, he drew the portrait of his peasant father on a rice sack, on which "Government Issue" mark was clearly printed, when he was in his early 30s. Since then, he has drawn the spirit of the land, the song of land, the face of land, people's letdown, collapse, abjection, betrayal and deep isolation on the land. However, he is quite "different" this time. Unlike his past paintings, which reflected the scenery of his hometown, Oji-ri, to frankly express the reality of Korea's farming districts, his recent works only let viewers imagine dilapidated furniture or socioeconomic contradictory residing in the society through the fragments of the spot or partial scenery of rural area in the picture. Under the exhibition title of *A Country*, He recently revealed his paintings of cows, the Land of Happiness (imaginary land in Buddhism), etc, which can be named as surrealistic *dépaysment* still-life pictures. It is not that difficult to infer the intent of the artist, who tries to awaken people's recognition of dual aspects in human life substantial symbols. Do these paintings insinuate the future neglecting current anxiety or crisis? Or do they suggest the new start of a person who had suffered from the symptoms of the era like a rabbit in a submarine? It is an isolation felt by sensitive objects. It is the time of inside crying, in which the scenery hides itself behind the peep of day. He exaggerates the reality or overdraws the scenery, so that it can lead viewers to look at the future through the picture. Where do these come from? We can firstly suspect the political economy, which weaves our daily lives. In 2009, we developed a new and unprecedented political system of monarchy focusing on only development, and the era reflecting *bellum omnium contra omnes*(The war of all against all) scratching the lives of people more viciously. These draconian lives in the 1980s always drop people into the trap of errors with a vertical structure.

Otherwise, does it come from culture? It is episteme of this era, which can be expressed as "Denial to all heavy things, abhorrence of all relations or paroxysm against totality." His substantial symbols indicate his frontal attack not to be swayed by current era of delusion. What he did in the remains of Iraq war was collecting the fragments and traces with the people of the third world. His works are also an extension of his wish to become a substantial existence. He believes in the implication power of parts rather than whole epitome, which tries to pursue or teach the viewers through the mood or the atmosphere. With the symbolic power, he is poised to fight against cunning common sense of this world. This shows why his struggle is a human geography instead of a national one. His works suggests us to be candid and frank about our lives and civilization from the eyes of history. Yes. He is not changed, but he is changed. When it says he is not changed, it means that he is still a sincere realist who never has been away from wrath, honor or the bottom of this land. However, he is also changed since he starts to have another eye to advance from the vertical structure to horizontal world, or the power of classical abstraction.

It should be an existence, but it has to be more critical. It should be nothingness, but it has to be fiercer. One should seek for the way to go through the contradiction of life, which already has become more cruel and crafty. It is a realistic dream concerning vivid and lively future. This is the way of a humane and classical realist.